

韓國醫學의 開拓者 (I)

醫學博士 鄭求忠 著

鄭求忠先生님께서 쓰신 『韓國醫學의 開拓者』를 紙上에서 읽을적마다 감탄한것이 사실이다. 어떻게 그만한 資料를 모으셨을까하고 저우히 놀라워하기도 하였다. 물론 先生님께서 開拓者個人과 親熟하신 까닭도 있겠으나 이것만으로는 그 많은 글을 쓰실 수가 없을것이다. 資料蒐集등에 남모르는 勞苦를 하신 先生님에게 삼가 敬意와 謝意를 올린다.

사실 鄭求忠先生님께서서는 우리 醫學界의 으뜸가는 開拓者이다. 혼한 表現으로 우리 醫學의 살아계신 辭典이다. 先生님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우선 부지런하신 모습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게된다. 몇日前에 『韓國醫學의 開拓者』를 敎員大學校 서울 事務室로 손수 가지고 오신 先生님을 뵈었을 때는 정말로 몸둘바를 몰랐다. 電話로 말씀해주셨드라면 即刻 이 快著를 찾아올수 있었는데 老軀를 이끄시고 일부러 來訪해 주신 先生님의 情誠에 무엇이라고 表現하기 힘든 心情을 느꼈다. 참으로 偉大한 先生님이라는 사실을 再三實感하였다.

이번에 出刊하신 『韓國醫學의 開拓者』에는 57人的 開拓者가 收錄되어있다. 이분들중에는 筆者自身이 직접 모셨거나 交分을 맺었던 先人들도 상당히계시다. 이 快著를 읽어 보면 限없는 鄉愁를 느끼게된다. 그리고 옛일들이 생각난다. 가지가지 敎訓을 남겨주신 開拓者先生님들이 그리워지는것은 筆者만의 心情이 아닌줄로 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우리들의 反省해야할 일의 하나가 記錄의 保存不充分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醫學界뿐만 아니라 모든 分野에서 이 점을 是正되어야 한다. 좋은 일이건 不幸한 일이건 記錄은 남겨져야 하고 保全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歷史는 만드러지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韓國醫學의 開拓者』는 단순한 人物紹介가 아니라 우리 醫學史에서 둘도 없는 값진 資料가 될것이 분명하다. 이번 快著는 第1輯이고 계속해서 續編이 刊行될것으로 알고 있다.

다시 한번 鄭求忠先生님에게 마음속으로부터 敬意와 謝意를 올린다. 그리고 健康의 化身과도 같으신 先生님께서 더욱 健勝하시고 萬壽無疆하시기를 祝願한다.

敎員大學校 總長 權彥赫